

“동대구IC 이전 기술적 문제 없다”

도로교통협회 용역조사 ...건교부 불가 주장과 정면배치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나들목의 이전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용역을 맡은 이번 조사는 건설교통부가 기술감독하고,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발주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전 가능성 타진 권고에 대해 ‘현지 여건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불가하다.’고 한 건교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협회의 용역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현재의 동대구 나들목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데 기술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구 나들목 통과 차량 중 92%가 경부고속도로 이용 차량이고, 대구-부산 간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8%뿐이며 >팔공산 나들목 개통에 따라 동대구 나들목의 이용 차량 분산효과(7% 감소)가 미미하고 >동대구 나들목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경실련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동대구 나들목 이전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동시 연결 >현재의 동대구 나들목을 지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건립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구간(2.7km) 무료화를 위한 건교부의 이 구간 매입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동대구 나들목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교부에서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전

에 따른 세부 비용과 문제점 등은 최종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건교부가 이전 비용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할 수도 있어 시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대구 나들목 이전, 경부고속도로 진입 나들목 설치, 민자구간 매입 등 대안 모색 및 소요 비용이 최소 700억 원에서 최고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